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의 영성: 『수련』(Exercitium)을 중심으로

정태영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조교수

들어가는 말

본문분석

1. 수련

1.1. 내적 수도원 만들기

1.2. 수련과 영혼

1.3. 감각의 수련

2. 말씀

2.1. 말씀의 능력

2.2. 말씀과 혼의 결합

2.3. 말씀에 의한 마음의 신화

3. 마음

3.1. 수련자의 마음

3.2. 예수님의 마음

3.3. 성모님에 대한 마음

4. 동정성

4.1. 동정녀

4.2. 동정

4.3. 동정성

나가는 말

들어가는 말

헬프타의 제르투르다(Gertrude of Helfta, 1256-1302)가 수도생활을 했던 13세기 헬프타의 베네딕도 수녀원은 독일 신비주의와 문화의 중심지였다.¹⁾ 그곳의 깊은 신심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 200년간 이어진 전통의 결과였다.²⁾

13세기 초 당시 독일 북동부에서는 시토회의 개혁이 강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여자 수도회들은 시토회가 해석한 베네딕도 규칙을 따랐다. 성 베르나르두스(Bernardus Claraevallensis, 1090-1153)의 영향과 그의 작품들에 대한 독서는 특별한 신적 은총을 받아들이도록 수도자들을 준비시켜 주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신비적 삶이 놀라게 번성하였다. 또한 같은 세기 말에는 독일 도미니코회의 신비영성 학파가 등장하였고, 그들은 신비주의를 전하는데 열정적이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헬프타의 신비주의자들을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³⁾

그곳에는 하크본의 제르투르다(Gertrude von Hackeborn, 1232-1292), 막데부르크의 메히틸드(Mechthild von Magdeburg, 1207-1294), 하크본의 메히틸드(Mechthild von Hackeborn, 1241-1298)가 함께 있었고, 이 세 사람이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에게 영향을 주었다.⁴⁾

헬프타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하크본의 제르투르다는 수녀원에 들어온 어린 소녀들이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 주었다. 수도자들이 만일 앎을 추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종교적인 문화’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⁵⁾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양성담당이었던 하크본의 메히틸다로부터 영성적, 지성적 양성을 받았다.⁶⁾ 덕분에 어려서부터 라틴어 고전을 접하였고, 나중에는 저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문학적 소양을 쌓게 되었다.

1) Gertrud The Great of Helfta, *Spiritual Exercises*, trans. and Introd., Gertrud Jaron Lewis/Jack Lewis, (Kalamazoo, Cistercian Publications, 1989), 2.

2) Caroline Walker Bynum, *Jesus as Mother: Studies in the Spirituality of the High Middle Ag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185.

3) P. Pourrat, *La Spiritualité chrétienne II: Le moyen Age*, (Paris, Librairie Victor Lecoffre, 1924), 126.

4) 조던 오먼,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 이흥근/이영희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98), 199.

5) Bernard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Men and Women in the New Mysticism*, (New York, Crossroad, 1998), 267, 446.

6) Olivier Quenardel, “Saint Gertrude of Helfta: Doctor of the Prayer of the Church”, *Cistercian Studies Quarterly*, 49(2014,2), 223.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교부들의 원전과 시토회 사부들의 글에 친숙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의 대상인 『수련』(Exercitium)⁷⁾이라는 작품에서는 성경과 12세기 남자 시토회 수도자들의 글이 자유롭게 인용되고 있다.⁸⁾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학문적으로는 스콜라 신학의 지나친 사변적 태도를 거부했던 성 베르나르두스의 입장을 따르고 있었다. 나아가 그를 교회와 베네딕도 수도회 전체의 중심으로 여겼다.⁹⁾ 또한 생티에리의 기욤(Guillaume de St. Thierry, 1085-1148)의 작품들을 통해서 ‘수련을 통한 영적 성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 갖고 있었다.¹⁰⁾ 때문에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교의적인 문제보다는 영적성장과 그것을 돕는 영성지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의 저술들은 수련자들이 각 전례 때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올바르게 전하는 영성적 지침들을 담고 있다.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의 중요성과 그것을 거행할 성직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인은 여성이고 수도자로서 성직자가 아니었지만 수도원 내부와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가르치고 조언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¹¹⁾ 전례와 신비 체험을 바탕으로 한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의 영성은 성직이 관료화되어 가던 당시 교회의 행정적 권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이해되었다.¹²⁾ 또한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베긴(Beguine)으로 살다가 늦은 나이에 수도원으로 들어온 막테부르그의 메히틸드를 통해 ‘베긴 신비주의’의 영향도 받았다.¹³⁾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20여년 동안 수도원에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우울해졌었고, 내적 공허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에 25세가 되던 1281년 예수 봉헌 축일(2월 2일) 즈음에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된다. 어느 날 그리스도의 현시를 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자신이 쌓아오던 인문학적 지식들이 수도생활의 목적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다.

7) 본 연구에서 주 텍스트로 삼은 판본은 ‘Gertrude 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Sources Chretiennes 127, (Paris, Cerf, 1967)’이다.

8) 바이넘(Caroline Walker Bynum)은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의 영성이 12-13세기의 시토회와 프란치스칸의 영성을 훨씬 앞질러 11세기의 안셀무스(Anselm of Centerbury, 1033-1109)와 페캉의 요한(John of Fécamp, +1079)의 영성과 비슷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Caroline Walker Bynum, *Jesus as Mother*, 186.)

9) Gertrude 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12.

10) Gertrud The Great of Helfta, *Spiritual Exercises*, 1.

11) Caroline Walker Bynum, *Jesus as Mother*. 187.

12) 그래서 헬프타 수녀들의 고해사제들이었던 도미니코회 신부들은 헬프타 수녀들의 작품을 널리 보급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Ibid.184.)

13) 신장석, 『베긴네의 출현과 가톨릭 여성신비주의』, 『가톨릭철학』 19, (2012), 22-24.

그 이후로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체험적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¹⁴⁾

또한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의 작품은 1525년 종교개혁과 관련된 상인들의 폭동으로 수도원의 수사본들과 책들이 모두 맥주통에 담겨 끓여지는 와중에도 놀라게 살아남았다.¹⁵⁾ 1536년에 쾰른의 카르투지오회 수사인 란스페르기우스(Lanspergius, 1489-1539)는 『영신 수련』(Exercitia spiritualia)¹⁶⁾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인쇄본으로 출판하였다.¹⁷⁾

『수련』을 포함한 헬프타 수녀원의 작품들은 먼저 네덜란드어와 영어로 번역되었고, 16세기에는 독일어와 이탈리아로도 옮겨졌다.¹⁸⁾ 델로프레(Marie-Hélène Deloffre)의 연구에 의하면 『수련』에는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Hipponensis, 354-430)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 생 티에리의 기욤, 생 빅토르의 후고(Hugues de Saint-Victor, 1060-1141), 생 빅토르의 리카르두스(Richard de Saint-Victor, 1110-1173) 등이 사용한 용어와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¹⁹⁾ 또한 헬프타의 다른 수녀들이 사용하는 것들과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고, 제르투르다의 고유한 것들도 많다.²⁰⁾ 문법과 수사적인 면에서도 제르투르다의 독창적인 면들이 드러나고 있다.²¹⁾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몸이 점점 아파가고 있던 생의 마지막 시기에 그동안 준비해오던 『수련』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책은 부활시기에 헬프타 수녀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수도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의 피정을 돕기 위해 쓰여졌다.²²⁾ 이것은 7일에 걸쳐 ‘세례받은 후 지금까지’ 자신의 수도생활 전체를 돌아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²³⁾ 앞의 4개의 수련에서는 세례와 견진(제 1수련), 그리고 착복(제 2수련), 봉헌(제

14) Claire Taylor Jones, “Hostia Jubilationis: Psalm Citation, Eucharistic Prayer, and Mystical Union in Gertrude of Helfta’s Exercitia spiritualia”, *Speculum*, 89,(2014,4), 1008.

15) Mary Jeremy, “Similitudes in the Writing of Saint Gertrude of Helfta”, *Mediaeval Studies* 19,(1957,1), 49.

16) 책의 제목은 다음에 인용된 문장에서 나왔다. “그녀는 꿀단지보다도 단 많은 기도들과 다른 많은 ‘영신 수련’ 책들을 썼다.” Gertrude 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I (Le heraut)*, tr.Pierre Doyere, Sources Chretiennes 139, (Paris, Cerf, 1968), 122.

17) Marie-Hélène Deloffre, “Les exercices sont-ils l’oeuvre de Sainte Gertrude d’Helfta? Approche stylistique”, *Cîteaux* 68.(2017,1/4), 122.

18) Bernard McGinn, *Flowering of Mysticism*, 269.

19) Marie-Hélène Deloffre, *Les exercices*, 128-129.

20) Ibid, 165.

21) Ibid, 179.

22) Bernard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273.

23) Michael Oliver, *St. Gertrude the Great*, (Dublin: Anthonian Press,1930), 71.

3수련), 서원식(제 4수련) 등 수녀로서의 영성 생활에 중요한 통과의례들을 상기시키고, 제 5, 6 수련은 하느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기도들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제 7수련에서는 죽음의 준비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²⁴⁾ 이를 통해 자신은 죽음을 준비하고, 다른 수녀들에게는 각 전례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다. 헬프타의 제르트루다의 영성은 베네딕도회 전례생활을 바탕으로 성경말씀과 전례기도문과 신비체험을 융합해내는 것이 특징이다.²⁵⁾ 최근 학자들은 제르트루다의 『수련』에 나타난 풍요로운 신학적 가르침을 재평가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이 『수련』이 ‘신비주의의 문화의 귀한 보석’이라고 언급하였다.²⁶⁾

본 소고에서는 『수련』의 본문 속에 나타난 영성적 가르침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교부들의 영성전통으로부터 전해받은 것들과 저자의 고유한 이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여성적 시선으로 재해석된 영적 성장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성독’으로부터 ‘영신수련’으로 넘어가는 영성사적 중간과정을 접하게 된다.

본문분석

전통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을 살펴보기 위한 주제어로는 우선 ‘수련’과 ‘말씀’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저자의 고유한 입장을 드러내주는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음’과 ‘동정성’을 선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해당 단어들을 라틴어 본문에서 검색하고 주제별로 선별하여 재구성하였다.

1. 수련

헬프타의 제르트루다의 『수련』(exercitium)이라는 책의 본문 속에서 ‘수련’이라는 단어

24) Parousia Clemens, “Gertrude, Spouse of Christ: Espousal with Christ through liturgies of entrance into the monastic life in the spiritual exercises of Saint Gertrude of Helfta”, *Magistra*, 27(2021,2), 54.

25) Miriam Schmitt, “Gertrud of Helfta: Her Monastic Millieu and Spirituality,” in *Hidden Spirings: Cistercian Monastic Women: Medieval Religious Women* vol 3, John A. Nicholas and Lillian Thomas Shank, (Kalamazoo: Cistercian, 1995), 475.

26) Benedict XVI, Saint Gertrude, general audience of October 6, 2010, https://www.vatican.va/content/benedict-xvi/en/audiences/2010/documents/hf_ben-xvi_aud_20101006.html(접속일: 2022.5.30)

는 13회 사용된다. 그 가운데 본문 속에서 나타는 경우가 6회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제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련’은 책 전체를 일관하는 주제이다.

1.1. 내적 수도원 만들기

루(Kurt Ruh)는 영성사적으로 볼 때, 제르투르다의 『수련』이 ‘성독’의 전통에서 ‘영신 수련’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중간 단계였다고 평가한다.²⁷⁾ 실제로 제르투르다는 각 수련의 시작에 후대의 이나시오 『영신수련』에서 사용되는 ‘구할 은총’, ‘불편심’, ‘담화’ 등에 해당하는 용어와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

새로운 삶의 거룩함으로 하느님 안에 새롭게 나고, 새로운 어린이로 다시 서기를 갈망하십시오²⁸⁾

그대의 마음은 온 힘을 다해 하느님께로 돌아설 것을 원하십시오²⁹⁾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영적인 결혼을 거행하십시오³⁰⁾

서원 갱신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십시오³¹⁾

그대가 사랑 안에서 쉬고 싶을 때는 모든 무질서한 애착과 장애와 환상으로부터 그대의 마음을 떼어내십시오³²⁾

가끔 하루를 정하십시오. 그날은 아무런 방해없이 거룩한 찬미를 드리기 위해 비우면 좋겠습니까.³³⁾

‘보완의 날’을 지내고 싶을 때는 일곱 번의 각 시간에 그대 자신을 완전히 그대 안으로 모으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담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³⁴⁾

27) 정해진 방법과 일정한 주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묵상은 이전의 성독 전통에는 없었던 것인데 제르투르다에게서 나타난다.: Kurt Ruh, *Geschichte der abendländischen Mystik II: Frauenmystik und Franziskanische Mystik der Frühzeit*, (München: Verlag C.H.Beck, 1993), 333.

28) “Itaque desidera renasci in deo per novae vitae sanctitatem, et restitui in novam infantiam”(Gertrude 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Sources Chretiennes 127, Paris, Cerf, 1967, 57.)

29) “cor tuum cum omnibus viribus suis ad deum convertere volueris”(Ibid, 80.)

30) “Hoc modo celebrabis spirituale matrimonium”(Ibid, 92.)

31) “Professionem seu votum novi fervoris innovatione spiritualiter celebrabis.”(Ibid, 124.)

32) “Quoties vacare vis amoris abstrahere cor tuum a cunctis inordinatis affectibus, impedimentis et phantasmatibus.”(Ibid, 156.)

33) “Statue tibi interdum unum diem, in quo sine impedimento possis vacare laudi divinae”(Ibid, 200.)

또한 착복식에 관한 기억을 새롭게 하며 행하는 수련을 설명하는 가운데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수도자가 이 수련으로 사랑과 덕의 수도원, 다시 말해 ‘내적 수도원’을 짓게 된다고 한다.

그대가 세상으로부터 떠나온, 첫 회개의 기억을 새롭게 할 때마다, 그대의 마음은 온 힘을 다해 하느님께로 회개하기를 원하십시오: 이 수련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그대를 사랑과 모든 덕의 수도원으로 지으십시오.³⁵⁾

‘집짓기’의 과정 안에는 ‘정감, 관조, 도덕, 심미적인’ 고유 역동들과 긴장이 들어있다. 쾰벨레(Susanne Köbele)는 헬프타의 제르투르다가 수련 안에서 ‘집짓기’라는 용어를 수덕적 의미로도 사용하고, 초월적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³⁶⁾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수덕과 초월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보았다.

또한 바가자니(Cyprian Vagaggini)도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에게는 안세니즘이나 뿔라지 아니즘, 또는 세마-뿔라지아니즘적인 사고도 없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의지적 노력에 대한 무의식적 과대평가도 없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완주의나 정적주의의 경향도 없다. 그는 제르투르다에게서 하느님의 사랑의 빛 안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자신의 독창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보완’(suppletio)³⁷⁾을 언급하였다. 그리스도의 ‘보완’에 대한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의 이해는 부족한 인간적 노력과 은총의 주도성에 대한 균형잡힌 의식에서 나온다.³⁸⁾

오 내 영혼의 자극히 감미로운 손님, 예수 제 마음에 가장 가까우신 분, 당신의 감미로운 육화가 오늘 제게 모든 죄의 사함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저의 게으름을 ‘보완’해 주시

34) “Quum tibi placuerit celebrare diem suppletionis, ad singulas septem horas temetipsam totam intra te colligas, ut possis habere colloquium cum amore.”(Ibid, 258.)

35) “Quoties renovato bono proposito memoriam primae conversionis tuae, qua mundo abrenuntiasti, celebrare, et cor tuum cum omnibus viribus suis ad deum convertere volueris: utere hoc exercitio, orans deum, ut te sibi in amoris omniumque virtutum aedificet monasterium.”(Ibid, 80.)

36) Susanne Köbele, “Erbauung-und darüber hinaus: Spannungen im volkssprachlich-lateinischen Spätmittelalter. Mit überlegungen zu Gertruds von Helfta >Exercitia spiritualia< ”,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und Literatur*, 137(2015,3), 420, 430-438.

37) 『수련』 안에서 ‘보완’(suppletio)은 총 4회 언급된다.

38) Cypriano Vagaggini, “The Example of a Mystic: St. Gertrude and Liturgical Spirituality.” in Vagaggini, *Theological Dimensions of the Liturgy: A General Treatise on the Theology of the Liturgy*, trans., Leonard J. Doyle and WA Jurgens, (MN, Liturgical Press, 1976), 759.

고,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제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³⁹⁾

또한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에게 ‘보완’은 하느님 앞에 따로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으로서 피정 또는 전례를 통한 영적 수련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보완의 날을 거행하는 것을 그대가 기뻐한다면, 일곱 번의 각각의 시간에 그대 자신을 완전히 그대 안으로 거두어 들이시오. 그러면 사랑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⁴⁰⁾

이렇게 ‘집짓기’이나 ‘보완’이라는 말로도 설명되고 있는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의 ‘수련’은 인간적 노력 자체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의 작용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내적인 변화이다.

가끔 하루를 정하십시오. 그날 아무 방해없이 거룩한 찬미를 위해 다 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삶의 모든 날에 당신의 하느님께 바치기를 소홀히 했던 감사와 모든 찬미를 그분의 공변된 강복으로 채워 주시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미의 이날은 환희의 날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찬미의 기억을 거행할 것이고, 그 기억으로 영원 안에서 주님께 환호할 것입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현존의 살지고, 그대의 혼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⁴¹⁾

가끔씩 날을 정하여 행하는 피정이나 영적 수련은 하느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때이고, 그분의 신비와 그분의 현존으로 우리를 살찌우시고,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신비에 ‘환희’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다.⁴²⁾

39) “O animae meae hospes dulcissime, Iesu mi praecordialissime, tua suavis incorporatio sit mihi hodie omnium peccatorum meorum remissio, et omnium negligentiarum mearum suppletio, atque totius deperditae vitae meae recuperatio.”(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72-74.)

40) “Quum tibi placuerit celebrare diem suppletionis, ad singulas septem horas temetipsam totam intra te colligas, ut possis habere colloquium cum amore: destinando ipsum pro te ad patrem misericordiarum quasi ad placandum eum: ut ex thesauro passionis filii sui dimittat tibi omne debitum tuum usque ad novissimum negligentiae punctum, ut in fine tuo secunda fias, quod tibi omnia peccata tua sint plene dimissa.”(Ibid, 258.)

41) “Statue tibi interdum unum diem, in quo sine impedimento possis vacare laudi divinae, in supplementum totius laudis et gratiarum actionis, quam persolvere neglexisti deo tuo, omnibus diebus vitae tuae, pro universis beneficiis suis. Et erit hic dies laudis et gratiarum actionis, et dies iubileus, et celebrabis memoriam illius speciosae laudis, in qua in aeternum iubilabis domino, quando satiaberis dei praesentia, et gloria domini implebitur anima tua.”(Ibid, 200.)

42)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환희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낳는 것’(cor parturire quod dicere non potest)을 의미한다고 하였다(P.L 36: 283)(Jones, Ibid, 1014.). 그리고 생 빅토르의 리카르두스(Richard of St. Victor)는 환희가 하느님 앞에서 우리들이 연주해야 할 ‘다섯 개의 오르간들’(organa

1.2. 수련과 영혼

하느님이 당신의 영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실 때 먼저 하느님의 ‘작용’이 있고, 그것을 받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수련’이 있다. 이를 통해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작용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삶에서 하느님을 향한 삶으로 방향을 돌리게 된다. 하느님의 ‘작용’과 우리의 ‘수련’이 합쳐지면 우리의 혼(anima)⁴³⁾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섬기게 되며, 하느님의 영(spiritus)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용약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변화한다.

당신 영의 감미로운 다스리심은 제게 하루의 무게와 열기를 얹고 가볍게 합니다. 당신의 온갖 작용과 저의 삶의 수련은 사랑의 삶에 협력하도록 만들어져서, 제 혼이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고 제 모든 생명이 당신을 지지하지 않고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이 저의 구원이신 하느님 당신 안에서 용약합니다. 저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당신께 찬미와 감사가 됩니다. 아멘⁴⁴⁾

몸과 결합된 ‘혼’이 수련을 거쳐 자유롭게 되면 하느님을 지지하지 않고 섬기게 된다. 육신을 다스리고 성장한 영적 상태를 제르투르다는 생티에리의 기음을 따라 ‘영혼’이라고 한다.⁴⁵⁾

첫 번째 단계에는 몸을 다스리고, 두 번째 단계에는 영혼을 수련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는 단지 하느님 안에서 쉽니다. 각각의 단계들은 고유한 성장의 방법이 있고, 고유한 완성의 정도가 있습니다.⁴⁶⁾

quinque)-깨달음(erudito), 격려(exhortatio), 헌신(devotio), 용약(exsultatio), 환희(jubilatio)- 중에 제일 마지막 오르간이라고 하였다(P.L 196, 373).

- 43) 본문 인용에서 구분을 위해, anima는 ‘혼’으로, animus는 ‘영혼’으로, spiritus는 ‘영’으로 번역하였다.
- 44) “Dulcis temperies spiritus tui abbreviet et alleviet mihi totum pondus et aestum diei, et tu ipse omnem operationem et exercitium vitae meae intricare dignare cooperationi vitae vivae dilectionis tuae, ut in aeternum te magnificet anima mea, tibi infatigabiliter serviat omnis vita mea, et exsultet spiritus meus in te Deo salutari meo, omnisque mea cogitatio et actio tibi sit laus et gratiarum actio. Amen.”(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152.)
- 45) 이것은 같은 시토회의 사부 생티에리의 기음의 가르침과 같다. 기음은 사도 바오로와 오리게네스가 가르치는 전통적인 삼분법적 인간이해(몸-혼-영)에 교육적 고안을 덧붙였다. 즉, 몸(corpus)과 결합된 혼(anima)과 몸에서 생겨나는 무질서를 극복하고 말씀과 결합한 영혼(animus)을 구분하였다. 그래서 상호간의 대립보다는 혼-영혼-영으로의 영성적 성장을 가르쳤다.(앙리드 튀박, “삼분법적 인간학(Anthropologie tripartite, 몸, 영혼, 영)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중세에서 현대까지”, 광진상, 『가톨릭 신학』 23호, 2013, 3.)
- 46) “Primus status circa corpus se habet, secundus circa animum se exercet, tertius non nisi in Deo requiem habet. Quorum singuli, sicut habent certam proficiendi rationem, sic in genere suo certam habent perfectionis mensuram.”:Guillaume de St. Thierry, *Lettres aux Frères du Mont-Dieu*, Sources Chrétiennes 223, tr., Jean déchanet, (Paris,Cerf,1985), 178.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의 『수련』에서 ‘혼’(anima)은 198회, ‘영혼’(animus)은 총 11회 나타난다. ‘혼’이 육신과 구분되지 않는 상태임이 비해, ‘영혼’은 육신에 둘러싸여 있지만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이다.⁴⁷⁾

영혼이 육신의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자연의 법칙과 자격이 주는 자유와 습관의 힘과 나이의 작용을 이기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자유의지를 통해 이 정결의 사랑을 불붙이지 않으면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 마음 안에서 욕망을 카우시면서, 굳건함도 주시지 않습니까?⁴⁸⁾

수련을 거치면 ‘혼’은 굳건한 ‘영혼’으로 변화되어 깊어지고 강해진다. 영혼은 신비적 일치가 이루어질 내적인 신방으로 수련자를 이끌어 간다.

저의 모든 힘은 당신의 사랑에 적합하게 됩니다. 저의 감각들은 당신 안에서 깊어지고 강해 집니다. 그리하여, 저는 성적으로는 깨지기 쉬우나, 영혼과 정신의 남성적 힘으로 이 사랑의 단계까지 이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완전한 일치의 내적인 신방에까지 이끌어 줍니다. 이제 오 사랑이여 저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소서. 이제 당신 안에서가 아니면 영도 혼도 더 이상 갖지 않습니다. 아멘.⁴⁹⁾

‘영혼’은 남성적인 힘으로써 내적 신방 앞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준다. 그러나 남성적 힘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한다. 이제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어야 한다. 여기서 여성적 힘의 역할을 암시하고 있다. 제르투르다는 단어의 문법적 성을 활용하여 남성적 힘과 여성적 힘을 대비시키고 그에 따른 영성적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⁵⁰⁾

47)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남성형 명사인 ‘영혼’(animus)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고, 보다 상위적 의미로 여성형 명사인 ‘동정’(virgo)을 말한다. 제 4장에서 이것을 다루겠다.

48) “Quando enim animus mortali carne circumdatus, legem naturae, libertatem licentiae, vim consuetudinis et stimulus aetatis vinceret; nisi tu per liberum arbitrium hunc amorem castitatis accenderes, tu hanc cupiditatem in nostris cordibus aleres, fortitudinem ministrares?”(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108.)

49) “Omnes meae vires sic fiant appropriatae tuae charitati, et sensus mei in te fundati et firmati, ut in sexu fragili, virtute animi menteque virili pertingam ad hoc genus amoris, quod perducit ad thalamum cubiculi interioris tuae perfectae unionis. Nunc o amor, tene et habe me tibi in propriam, quia iam ultra nisi in te nec spiritum habeo, nec animam. Amen.”(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186.)

50) 제르투르다는 자신이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의미를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문법적 어휘들(vocabulaire grammatical)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Marie-Hélène Deloffre, *Les exercices*, 167).

1.3. 감각의 수련

수련을 통하여 그분의 고통을 느끼려 노력하면, 우리 안에 그분의 감각이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는 게으름과 무감각으로부터 깨어난다. 이 수련은 우리의 잘못을 가려주고 보완하여 준다.

저의 감각을 아마포처럼 그분의 지극히 영광스러운 머리의 피자국에, 그 공경하을 고통에 감이주소서. 그분의 발심향으로 인해 내 영의 게으름과 무감각에서 제가 변화합니다. 마치 땅의 메마름이 봄에 자신의 새로움에서 꽃을 피워내듯이 (말입니다). 오 예수, 나의 지극히 감미로운 이여,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감각의 수련은 모든 저의 잘못의 덮개가 되어주고, 모든 저의 소홀함의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제게 부족했던 것들을 당신 안에서 모두 갖게 됩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당신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아멘.⁵¹⁾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나의 육신적 감각은 물러나고, 예수님의 감각이 내 안에 서 살아나게 된다. 이 과정을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감각의 수련’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일치한 영혼이 성장을 통해 얻게 되는 선물이다.

다른 한편으로, 마치 공기가 태양의 빛을 받듯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신성을 받으면 우리의 정수는 깊이 꿰뚫려 예수님과 깊이 일치하게 된다. 이런 일치를 제르투르다는 ‘신화됨’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수련을 통하여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과 같이 나도 느끼게 될 때 얻어지는 결과이다.

“내가 신성으로 성부의 모습이듯이, 너는 인성으로 나의 모습이 될 것이다. 너의 신화된 혼 안에 나의 신성의 유출을 받아서 그렇게 될 것이다. 마치 공기가 태양의 빛을 받듯이 정수가 완전히 꿰뚫려 나와의 더 친밀한 일치가 가능할 것이다.”⁵²⁾

51) “Sensus meos lini et perunge illius gloriosissimi capitis cruore, illorum venerabilium sensuum dolore, ut illo balsamico sapore, tota immuter a spiritus mei ignavia et torpore, sicut mutatur sterilitas terrae, veris tempore, suae novitatis in flore. Eia Iesu mi dulcissime, sanctissimorum sensuum tuorum exercitium sit totius culpaе meae operimentum, et omnium negligentiarum mearum supplementum: ut quidquid mihi deest in me, totum habeam in te, qui te totum impendisti pro me. Amen.” (d’Helfta, *Oeuvres Spiritelles I (Les Exercices)*, 272.)

52) “Sicut ego sum figura substantiae Dei Patris in divinitate, sic tu eris figura substantiae meae ex parte humanitatis, suscipiens in tuam deificatam animam emissiones meae divinitatis, sicut aer suscipit solares radios; quo unitivo medullitus penetrata habitaris ad familiariorem mei unionem.” (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I*, 258.)

엘라존슨(Ella Johnson)은 헬프타의 제르투르다가 생티에리의 기음과 같이 감각 중에서 ‘맛봄’(sapere)을 ‘지혜’(sapientia)와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음을 주목한다.⁵³⁾

그대의 입이 지혜의 소금으로 가득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신앙의 믿음을 맛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극히 감미로우신 예수님, 저는 당신으로부터 지혜의 소금과 영원한 생명에 필요한 내적 이해의 영을 받고 싶습니다.⁵⁴⁾

여기서는 중세 때 예비자의 입에 넣어주던 축성된 소금을 언급하며 감각을 통한 물리적 맛봄과 내적이해를 연결시키고 있다. 특히 성체성사를 물리적으로 받아모심 또는 맛봄은 하느님의 지혜를 내적으로 맛보는 데로 이끌어 주는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의 일치가 이루어진다.⁵⁵⁾

종합적으로 볼 때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수련’을 인간의 영적 성장과 변화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생티에리의 기음의 영향이다. 기음은 오랫동안 성도의 전통안에서 ‘묵상’으로 대체되어 잊혀져 있던 ‘수련’이라는 용어를 다시 살려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표현하는데 사용하였다.⁵⁶⁾

2. 말씀(verbum)

우리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된다. 이것은 수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의 『수련』에서 ‘말씀’(verbum)이라는 단어는 30여회 나타나고 있다.

53) Ella Johnson, “Eucharistic Theology and Anthropology in Gertrude of Helfta and William of Saint-Thierry: On the sense of Taste”, *Magistra* 27(2021,1), 82.

54) “Hic orabis, ut os tuum repleatur sale sapientiae, ut possis gustum fidei in spiritu sancto sapere: Accipiam a te, Iesu dulcissime, salem sapientiae et spiritum intelligentiae propitius in vitam aeternam Amen.”(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64.)

55) Johnson, *Eucharistic Theology*, 79-80.

56) “기음은 ‘수련’(exercices)이라는 말의 의미를 고대 그리스도교에서 사용한 의미와 동등하게 사용하였다.”: Jean Leclercq, “Exercices Spirituels” *Dictionnaire de Spiritualité* IV/2, (Paris:Beauchesne 1961),1907; 생티에리의 기음, 성 도미니코, 카르투지오의 귀고, 아우구스부르크의 다비드, 보나벤투라 등은 ‘수련’을 ‘성독’과 결합시켰다. 이것은 후대에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으로 발전된다: Ella Louise Johnson, *Liturgical exercise as a Theological anthropology in Gertrude the Great of Helfta’s Documenta spiritualium Exercitium*,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t. Michael’s College, 2010), 56-57.

2.1. 말씀의 능력

말씀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원죄 이전 상태의 회복만을 말하지 않고, 살아야 할 현재의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느님, 정결한 몸과 타락하지 않은 영혼에 자애로이 거처하시는 당신은 사탄의 꾀임으로 악하게 된 첫 인간들의 본성을 모든 것을 만드신 당신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본래의 순수함으로 다시 부르신 뿐 아니라, 현세에서는 가져야 할 잃어버렸던 선의 체험으로 이끄십니다. 아직은 죽음의 조건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들이 천사들을 닮도록 하십니다.⁵⁷⁾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화될 수 있고 천사들과 비슷함까지 나갈 수 있다는 설명으로 ‘수련을 통한 인간의 성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⁵⁸⁾

또한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의 현존으로 이끈다.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하느님을 여성 명사인 ‘사랑’으로 인격화시키고 다시 ‘여왕’으로 표현하고 있다.⁵⁹⁾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57) “Deus castorum corporum et incorruptarum animarum benignus inhabitator, deus qui humanam substantiam in primis hominibus diabolica fraude vitiatam, ita in verbo tuo, per quod omnia facta sunt, reparas, ut eam non solum ad primae originis innocentiam revoces, sed etiam ad experientiam quorundam bonorum quae in novo saeculo sunt habenda perducas, et obstrictos adhuc conditione mortalium, iam ad similitudinem provehas angelorum.”(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108.)

58)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하느님과 영혼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력’(cooperatio)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메히틸드의 작품들이나, 헬프타에 있는 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을 통해 전해진 보나벤투라의 『하느님을 향한 마음의 여정』에는 등장하지 않는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의 고유한 용어이다.(Marie-Hélène Deloffre, *Les exercices*, 127, 160.)

59)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인격화해서 표현할 때 선(bonitas), 애덕(caritas), 애정(dilectio), 자비(misericordia), 평화(pax), 신심(pietas), 지혜(sapientia), 진리(veritas)의 여성 명사들을 여성 대명사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헬프타의 제르투르다가 하느님의 속성 가운데 여성적인 면만 따로 선택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여성적 자존감을 드러내고 있다 (Gertrud The Great of Helfta, 앞의 책, 7). 또한 하느님은 ‘어머니처럼’ 버려진 것을 품는다고 한다 : “Tu tamquam mater perditum foves in gremio.”(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278.)

오 사랑이여, 죽을 때에 당신의 말씀들이 저를 포도주보다 더 좋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술이 꿀보다 생청보다 더 감미롭게 저를 위로합니다. 당신은 제게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험한 곳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오 여왕이여 저는 장애없이 거룩한 사막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이릅니다. 거기서 내 신랑의, 하느님의, 어린양의 감미로운 현존으로 영원히 기뻐하며 향유하기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아멘’이라 말할 것입니다.⁶⁰⁾

그리고 말씀은 나쁜 생각을 없애준다.

당신이 도우신다면 나의 원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신이 저를 위해 서 계시고, 그때 제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현으로만 제게 여시고 사탄의 생각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말씀으로 그것을 붙어 날리십니다. 나의 원수가 나를 수없이 넘어뜨려서 제가 당신의 오른손 위에 넘어지면 온 마음을 다해 그 손을 껴안고 입 맞추겠습니다. 당신이 대신 싸워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면 모든 위협으로부터 제가 다치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⁶¹⁾

이러한 능력을 지닌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결합 하실 때 그 말씀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혼이다.

2.2. 말씀과 혼의 결합

우리의 혼은 하느님의 말씀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향유’할 때 하느님과 결합된다. ‘이용함’은 한시적인 세상 사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고, ‘향유함’은 궁극적 선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다.⁶²⁾

60) “Eia o charitas, in mortis hora, tua me reficiant verba super vinum meliora, et consolentur me labia tua super mel et favum dulciora: et tu ipse sis mihi via, ne tunc errem per devia, sed per te adiuta, o regina, absque impedimento perveniam ad divini deserti speciosa et pingua, ubi in aeternum laetabunde perfrui merear sponsi mei Dei et Agni melliflua praesentia. Amen dicant omnia.”(Ibid,168.)

61) “Ubi est adversarius meus, te adiuvante? Te pro me stante, huc accedat ad me. Tu solo visu aperis mihi et denudas cogitationes satanae, et exsufflas eas verbo coram me? Si millies praecipitaverit me inimicus meus, super charissimam manum dexteram tuam cadens, hanc amplexabor et deosculabor totis praecordiis, et te propugnante, te defendente me, ab omni periculo illaesa stabo fortis.”(Ibid, 188.)

62) K.-Y. Burchill-Limb, “The actuality of Augustine’s distinction between ‘uti’ and ‘frui’”, *Augustiniana*, 56, (2006,1/2), 183.

오 사랑이여 [...] 당신을 이용하는 것은 하느님께 혼돈이 됩니다. 당신을 향유함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당신은 모든 감각을 넘어서는 평화입니다. 거기에 신방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⁶³⁾

하느님의 말씀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혼은 모든 감각적인 것을 넘어서게 된다. 이것을 신방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엘라존슨은 제르투르다가 영성생활 안에서 육체성을 강조한다고 보았다. 육신의 감각으로는 하느님을 알 수 없다는 오리게네스와는 완전히 대조되며, 육신의 감각에 대해 다소 긍정적 입장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나 베르나르두스와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보고 알 수 있는 것과 내세에서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전례적 맥락 안에서는 연결성을 가질 뿐 아니라 동일하다는 것이다.⁶⁴⁾

그러나 엘라 존슨의 주장과는 다르게 위의 본문에서는 감각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감각을 넘어서고 언어를 넘어서는 ‘디오니시우스적 전통의 부정적(apophatic) 신비주의’와 우리의 영혼과 하느님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표현하는 ‘아가서 전통의 정감적(affective) 신비주의’를 결합하여 이해하는 입장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⁶⁵⁾ 이것은 헬프타의 제르투르다가 전해오는 영성적 전통을 치우침 없이 균형있게 잘 통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2.3. 말씀에 의한 마음의 신화

하느님의 얼굴, 즉 하느님의 현존 앞에 서면 모든 감각은 소멸하고, 마음도 말라버린다. 이런 상태에서 생명의 말씀은 우리 안에 ‘신화된 마음’을 이루어 주신다.

저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얼굴의 놀라움에 말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제게는 목소리도 감각도 없습니다. 그분 장엄함의 광채로 제 마음과 힘이 말라버렸습니다. 오 사랑이여, 나의 하느님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은 생명의 말씀으로 저를 위해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제게 이러한 ‘신화된 마음’을 휘저어 주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의 모든 힘이 드러나며 빛나게 됩니다.⁶⁶⁾

63) “O amor, [...] Te uti, est deo intrinseci. Tu frui, est cum deo unum effici. Tu es illa pax quae exsuperat omnem sensum, et illic iter quo pervenitur ad thalamum.”: 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166.

64) Ella Louise Johnson, *Liturgical exercise*, 95.

65) 윌리엄 존스턴, 『신비신학』, 이봉우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7), 33-41.

제르투르다의 인간적 마음은 그리스도의 인간적 마음과 분명하게 연결된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그분의 인간적 마음은 인간적 사랑만이 아니라 충만한 신적 사랑도 드러내게 된다.⁶⁷⁾ 이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진 ‘신화된 마음’은 우리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자극히 맑으신 당신의 혼은 자극히 고귀한 담보물을 즐기소서. 그것으로 제 영혼은 구원되었습니다. 당신의 감미로운 신화된 마음은 즐거워하소서. 사랑은 저를 위해 죽음으로 그것을 깨뜨리셨습니다.⁶⁸⁾

제르투르다의 『수련』 안에는 교부 전통의 ‘신화’(deificatio)라는 용어 대신 ‘신화된 마음’(deificatum cor)이라는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만의 고유한 이해가 담긴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⁶⁹⁾ 이것은 수련자 스스로 신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수련자의 마음이 수동적으로 신화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것은 영적 성장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헬프타의 제르투르다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한 예이다.

3. 마음

‘예수성심’은 헬프타의 수녀들이 쓴 책에 나타나는 가장 공통된 주제 중의 하나다. 그리고 이 헬프타의 수녀원은 예수성심에 대한 신심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받는다.⁷⁰⁾ 수련자의 마음이 하느님의 현존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으로 인해 ‘신화된 마음’

66) “Facta sum elinguis in admiratione gloriae vultus eius, nec iam est mihi ultra vox neque sensus, quia in splendore maiestatis eius emarcuit cor meum et virtus. O amor, tu in deo Iesu meo, verbo vitae, responde pro me, et commove mihi hoc deificatum cor, in quo omnis tua virtus tam evidenter elucet.”(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202-204.)

67) Michael Anthony Abril, “Gertrude of Helfta’s Liturgical-Mystical Union”, *Cistercian Studies Quarterly*, 43(2008,1), 84.

68) “Iubilet tibi anima tua praeclarissima, pretiosissimum pignus, quo mea redempta est anima. Iubilet tibi tuum melifluum deificatum cor, quod in morte pro me rupit amor.”(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232.)

69) ‘신화된 마음’(deificatum cor)은 『수련』 안에 2회 나타난다. 메히틸드(Mechthild)가 하느님의 마음(cor Dei)이라는 표현을 자주사용하는데 비해,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예수님의 마음(cor Iesu), 신화된 마음(Cor deificatum)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한다.(Bernard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441.) Deificus는 디오니시우스의 θεοφυτικός의 번역으로 고대에 자주 사용된 용어이다. (Marie-Hélène Deloffre, *Les exercices*, 129). 또한 베네딕도 규칙서에서는 deificum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베네딕도, 『수도규칙』, 이형우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1), 46.

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본 장에서는 헬프타의 제르투르다가 이해하는 ‘수련자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의 상호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신이 가진 ‘성모님에 대한 마음’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수련자의 마음

수련자의 마음은 말씀을 되새기는 곳이다. 즉 마음은 ‘성독’이 일어나는 자리이다.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수련』에서 성독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⁷¹⁾ 그런데 ‘읽고-묵상하고-기도하고-관상하는’ 성독의 단계들을 ‘보고-사랑하고-믿고-더 깊이 사랑하는’ 단계로 변화시켜 설명하고 있다.

제 마음은 좋으신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저는 저의 일을 임금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았고, 사랑하였고, 믿었고, 더 깊이 사랑하였습니다.⁷²⁾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당신 안으로 옮겨 주시면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그분 안에서 머무르게 된다.

오 예수, 꽃다운 신랑이여, 죽음이 혼을 육신에서 빼내듯이, 당신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당신 안에 옮겨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떨어지지 않고 당신 안에 머무르겠습니다.⁷³⁾

하느님의 축복과 비추임을 통해 수련자의 마음에 부족했던 신실함과 진리를 보완하고 하느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은 헬프타의 제르투르다가 매우 좋아하는 주제이다.⁷⁴⁾

3.2. 예수님의 마음

근대의 신심과 달리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의 신비 체험 안에는 고통이나 정죄에 관한 말이 없다. 예수성심은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에게 당신을 영광중에 빛나는 모습으로 보여

70) Bernard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270.

71) Johnson, *Liturgical exercise*, 57.

72) “Eructavit cor meum verbum bonum, dico ego opera mea regi. Quem vidi, quem amavi, in quem credidi, quem dilexi.(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1967, 88.)

73) “Eia Iesu, sponse floride, sicut mors transponit animam a corpore, sic amor tuus cor meum transponat in te, ut glutino inseparabili adhaeream in te.”(Ibid, 106.)

74) Ibid, 57.

주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다. 그리고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기쁘게 응답한다.

제르투르다의 신비적 삶은 성심과의 깊은 일치 가운데 이루어졌다. 성심은 ‘풍요로운 보석함’, ‘성령에 의해 연주되는 수금’, ‘감미로운 향기를 내는 황금 향로’, ‘하늘과 땅 사이에 메달린 등불’, ‘천상 연인의 목소리가 오라고 부르는 집’이었다.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관상기도 중에 이 성심으로 들어갔다.⁷⁵⁾ 그곳은 신비로운 공간이었다.

하느님의 거룩한 천사님, 제 영혼과 육신의 수호자여.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극히 감미로우신 마음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은 당신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은 세례 때에 저를 당신께 맡기셨습니다. 당신의 성실하신 부성의 돌봄 안에 저를 받아주소서.⁷⁶⁾

예수의 ‘자극히 감미로운 성심’은 영적인 창조에 관여한다. 성심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 흡수되어야 할 곳, 묻히게 될 곳이다. 우리는 그분과 일치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저의 품행이 당신을 닮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과 평화 안에서 저를 굳건하게 하소서. 당신 사랑의 빛을 저의 감각에 결합하여 주소서. 오직 당신만이 저를 가르치고, 마음의 연약한 곳으로 이끄시고, 넣어주십니다. 저의 영을 당신의 영으로 유효하고 심오하게 흡수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 안에 참으로 완전히 묻히고 싶습니다. 당신과의 일치 안에서 저를 벗어나십시오. 당신의 사랑 외에는 아무도 당신 안에 있는 저의 무덤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사랑이 자신의 봉인으로 나를 감춥니다. 끊어지지 않는 줄로 당신께 묶습니다. 아멘.⁷⁷⁾

그분의 성심은 우리를 신화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분으로 인해 신화된다. 이 둘은 서로 짝을 이룬다.⁷⁸⁾ 또한 ‘중재없이’ 열려 있다는 말로 하느님과 우리 영혼과의 직접

75) H. Graef, *The Story of Mysticism*, (London: Peter Davies, 1966), 162-163.

76) “Salve, angele dei sancte, custos animae et corporis mei, per dulcissimum cor Iesu Christi filii dei, pro amore eius que te creavit et me, pro amore eius qui me tibi commendavit in baptisate, in curam tuae fidelissimae paternitatis suscipe me.”(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64.)

77) “Mores meos tibi assimila: in tui amore et pace me consolida. Sensus meos concludere luce tuae charitatis, ut solus tu doceas, ducas et instruas me in penetrabilibus cordis. Absorbe spiritum meum tuo spiritu tam valide, tamque profunde, ut vere tota sepeliar in te, et in tui unione deficiam a me, sepulturamque meam praeter amorem tuum nemo alius sciat in te. Hic amor suo me claudat sigillo, et consignet tibi nexu individuo. Amen.”(Ibid, 140-142.)

78) Marie-Hélène Deloffre, *Les exercices*, 159.

적이고 체험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오 예수, 나의 감미로운 희망이여, 신화하는 당신의 성심은 나에 대한 사랑으로 깨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중재없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서 나온 내 혼의 으뜸 피난처입니다.⁷⁹⁾

또한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당시 유행하던 여성 신비가들의 용어인 ‘심연’으로도 표현한다.⁸⁰⁾

당신 자비의 심연에 저를 받으소서. 나의 예수여, 그리고 당신 자비로움의 깊은 곳에서 모든 흠으로부터 저를 씻으소서. 나의 예수여, 당신과 함께하는 품 안으로 저를 받으소서. 그리하여 당신께 완전한 일치의 계약으로 당신과 결합되기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예수여, 당신 사랑의 지극히 감미로운 동거, 거기서 당신의 감미로운 입술의 입맞춤을 경험하게 하소서.⁸¹⁾

오, 예수님, 나의 믿음직한 친구시여, 당신의 흘러넘치는 자비의 심연은 내게 가장 안전한 품입니다.⁸²⁾

제르투르다는 예수성심을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통해 이루게 될 상태로 이해한다.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예수성심에 대한 대상적이고 대중신심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주체적이고 신비신학적인 이해로 나아가고 있다. 끌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의 영향으로 제르투르다에게 ‘마음’은 종합적이고 중요한 상징이다.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에게 마음은 감정의 자리일 뿐 아니라 영혼전체의 자리이다. 또한 ‘마음’은 하느님을 만나는 으뜸 장소이다.⁸³⁾

79) “Eia Iesu, dulcis spes mea, cor tuum deificum, mei amore ruptum, quod omnibus peccatoribus sine intermissione est apertum, sit animae meae ex corpore suo primum refugium”(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248.)

80) 맥긴은 제르투르다가 사용한 ‘심연’이라는 용어의 배경에 따라서 시토회의 전통적 하느님 이해의 영향과 베킨 신비주의의 영향을 구분한다.(Bernard McGinn, *The Flowering of Mysticism*, 448). 한편 하울리어와 슈미트는 ‘심연의 강’이 신학적이기 보다는 심리학적인 배경 위에서 해석된다고 본다.(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178.)

81) “Suscipe me, Iesu mi, in abyssum misericordiae tuae, et ab omni macula lava me in profundo tuae clementiae. Suscipe me, Iesu mi, in amplexum tuae cooperationis, ut tibi copulari merear foedere perfectae unionis. suscipe me, Iesu mi, in praeuave connubium tui amoris; ibi fac me experiri osculum tui meliflui oris.”(*Ibid*, 106-108.)

82) “Eia Iesu, mi fidelis amice, tuae largifluae misericordiae abyssus sit mihi sinus tutissimus.”(*Ibid*, 246.)

83) Abril, *Liturgical-Mystical Union*, 83.

3.3. 성모님에 대한 마음

한편,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인 예수님을 성모님보다 더 가깝게 느끼고 있다.⁸⁴⁾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보통 성모님께 중재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는데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 중재를 청하고 있다. 클라크(Anne L. Clark)는 제르투르다가 예수님을 마리아와 자기 자신 사이의 중재자로 생각하는 예외적인 역동이 생겨나고 있음을 지적한다.⁸⁵⁾ 즉, 성모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도록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청한다. 마치 시어머니에게 잘 말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하는 아내처럼 말하고 있다.⁸⁶⁾ 엘킨스(Sharon Elkins)도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의 작품들 안에서 마리아를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로 이해하던 중세의 일반적 사고방식과 달리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한정지어 언급함을 지적한다.⁸⁷⁾

오오, 저 동정의 장미께 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당신 모성의 돌보심 안에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저는 [...] 이 사람을 당신께 맡깁니다. 보십시오, 어머니 이 사람의 허물을 없애서 제게 다시 데려오시고, 또한 [...] 그녀를 가르치셔서 다시 돌려주십시오.” 아멘.⁸⁸⁾

그리고 성모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도와주시므로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를 위한 성모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해달라고 청하고 있다. 그 목적은 성모님의 자애로우심이

84) 『수련』 안에서 예수(Jesu)는 163회, 마리아(maria)는 16회 검색된다.

85) Anne L. Clark, “An uneasy triangle: Jesus, Mary and Gertrude of Helfta”, *Maria* 1.1, 2000, 51. 클라크는 예수님이 중재하여 마리아께서 제르투르다에게 선물을 전해주시기를 청하는 형식의 기도를 예로 든다. : 주 예수님이 지극히 감미로우신 당신의 어머니에게 선물을 건네며(porrigen xenium)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어머니, 저는 당신께 두몫을 드립니다. 당신이 저의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이것을 마땅히 걸어주시면 저는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에게서 빼앗지 않겠습니다.” (Gertrud 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V ((Le héraut))* 48, 21. tr. Jean-Marie Clément, les Moniales de Wisques et Bernard de Vregille, , Sources Chrésiennes 255.(Paris, Cerf, 1978), 392.)

86) “sicut unquam diligentius fidelis sponsus dilectam sponsam propirae matri potuit commendare”(부지런하고 성실한 신랑이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에게 맡기듯이)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I((Le héraut))*, 340.

87) Sharon Elkins, “Gertrude the Great and the Virgin Mary”, *Church History* 66/4, 1997, 724-725. 제르투르다는 또 다른 작품에서도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Matri tuae)께 저를 위해 도와주실 것을 기도해 달라고 청한다. 즉 제르투르다는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108.)

88) “Eia, eia, dicito de me illi rosae virgineae: <<Suscipe hanc in curam tuae maternitatis: ego eam tibi commendo in tota virtute meae divinae charitatis. Vide, mater, quomodo mihi eam immaculatam repraesentes, et secundum cor meum educatam reconsignes.>> Amen.”(*Ibid*,120)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도 역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예수님을 통해 성모님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다.

저를 위한 지극히 영광스러운 동정 성모 마리아의 존엄하신 마음은 당신께 기쁨이 되시기를 빕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선택하신 어머니의 혼은 당신께 기쁨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자애로우심이 항상 제게 열려 있게 하소서.⁸⁹⁾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인간적이고 대중적인 성모 신심을 보이고 있다. 결혼의 모티브로 예수님과 성모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것은 베르나르두스의 신비신학으로부터 받은 영향이다.⁹⁰⁾ 또한 수도원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떠난 수도자에게 그리스도는 영혼의 정배로 제시되었고, 수녀들은 이런 전망에 매료되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신심이 연인과의 사랑의 관계로 대체되었다.⁹¹⁾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체험에 초점을 맞추고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한 관계를 설정하였다. 그래서 이전의 마리아 신심에 관련한 남성 신학자들의 라드베르투스(Paschasius Radbertus, + 860), 베르나르두스(Bernardus Claraevallensis, 1090-1153), 콘라두스(Conradus Saxo, +1279)- 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⁹²⁾

4. 동정성

웨누(M.-D. Chenu)에 의하면 중세 때 한동안 문법적 비판이 신학적 관조에 적합한 도구로 사용되었다.⁹³⁾ 거룩한 실재에 관련한 표현과 의미의 진전과정에 대해 문법적인 것이 도구로 사용된 것은 주로 12세기였고, 13세기에도 그 흔적이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도 수련자의 영적 성장의 어떤 단계를 표현하기 위해 ‘동정녀’(virgo)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동정(virgineum), 동정성(virginitas)이라는 초월적

89) “Iubilet tibi pro me gloriosissimae virginis matris Mariae dignissimum cor et anima, quam tibi in matrem elegisti pro meae salutis indigentia, ut mihi semper eius materna pateat clementia.”(Ibid, 232)

90) Olivier Quenardel, “Saint Gertrude of Helfa: Doctor of the Prayer of the Church”, *Cistercian Studies Quarterly*.49(2014,2), 226.

91) Simone Roisin, *L'hagiographie cistercienne dans le diocèse de Liège au XIIIe siècle*, (Louvain, Lovain Bibliothèque de l'Univ,1947), 116.

92) Clark, *uneasy triangle*, 54.

93) cf. M.-D. Chenu, *La théologie au douzième siècle*, (Paris, Librairie Philosophique J. Vrin, 1976), 100-101.

이고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⁹⁴⁾

클레멘스(Parousia Clemens)도 『수련』에서 ‘동정성’에 대한 용어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수도생활의 봉헌에 관한 책인 『수련』을 쓸 때 모든 자매들이 이 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도원이 동정녀들과 과부들, 또는 결혼 후에 수도원에 들어오는 이들로 뭉뚱그려 13세기에 동정녀들만 주교에 의해 봉헌되었고, 다른 자매들은 자기 수도서원의 한 부분으로서 정결서원을 하였는데 『수련』의 본문에서 제르투르다는 단어를 섬세하게 골라서 모든 수도자들이 포함될 수 있는 문장들을 선택하였다. 모든 자매들이 주교에 의해 봉헌되지는 못하지만 제르투르다는 기도문을 통해 모두가 그리스도의 정배배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묵상하도록 초대하였다.⁹⁵⁾

저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분의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 그분을 사랑하면, 저는 정결해집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면, 저는 순수해집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저는 동정녀가 됩니다.⁹⁶⁾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수련』 안에서는 누구나 그분을 사랑하면 정결해지고, 그분께 가까이 가면 순수해지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동정녀가 된다. 여기서 동정은 인간 영혼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영적 성장과정의 높은 단계로 이해된다. 자신의 노력으로 육신의 욕망을 이겨낸 ‘영혼’은 신방 앞에 이르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말씀의 은총으로 순수해진 ‘동정녀’는 신방 안으로 인도된다.

94) virgo 5회, virgineum 1회, virginitas 2회.

95) Clemens Parousia. “Gertrude, Spouse of Christ: Espousal with Christ through Liturgies of Entrance into the monastic life in the spiritual exercises of saint Gertrude of Helfta.” *Magistra* 27(2021. 2), 60; 뿐만 아니라 봉헌식에서 주교가 동정녀들을 위해 하는 기도문을 변형하여서, 주교가 아니라 수녀들이 바치는 기도문으로 고치고, 동정녀 뿐 아니라 과부와 결혼 후 수녀원에 들어온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Ibid, 62); “하느님, 정결한 몸과 타락하지 않은 영혼에 머무시는 자애로운 분, 당신은 사탄의 꾀임으로 악하게 된 첫 인간들의 본성을 모든 것을 만드신 당신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본래의 순수함을 다시 부르실 뿐 아니라 새 시대에도 가져야 할 그 선택의 경험으로 이끄십니다, 아직은 죽음의 조건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들을 천사들과 비슷해지도록 이끄십니다. 당신의 부당한 여중을 굽어보소서(respice super me indignam famulam tuam). 당신의 손에 제 절제의 서원을 바칩니다. 당신께 저의 서원을 드립니다. 제가 선택한 같은 서원을 바칩니다.”: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108.

96) “Amo Christum, in cuius thalamum introivi, [...] Quem cum amavero casta sum, cum tetigero munda sum, cum accepero virgo sum.”: *Ibid*, 114)

4.1. 동정녀

‘동정녀’(virgo)라는 칭호는 우선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부여된다. ‘동정이신 어머니’는 헬프타의 제르투르다가 성모 마리아를 칭할 때 선호하던 표현이다.

어서 오세요 마리아, 온유하신 여왕이시여, 자비의 올리브 나무여, 당신을 통해서 생명의 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온유하신 여왕이시고, 거룩한 새싹의 동정이신 어머니시여, 당신을 통해서 천상 빛의 후손, 이스라엘의 향기로운 새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⁹⁷⁾

그리고 자신에게도 부여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동정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과 더욱 친밀해지는 신비적 일치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동정의 모성을 본받음이 모든 이에게 가능하다고 말한다.⁹⁸⁾

4.2. 동정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동정’(virgineum)이라는 형용사를 ‘하늘’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동정’은 하느님의 거처에 함께 있으면서 온 하늘과, 하느님의 손가락이 하는 놀라운 일들과 아침 별들을 비춘다.

이제 시현의 잔, 취하게 하는 잔, 거룩한 영광의 빛나는 얼굴이 그대에게 오고, 그대는 취할 것입니다. 그대는 거룩한 기쁨에 휩싸여 마실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샘이신 분께서 자신의 충만함의 이름다움 안에서 그대를 영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 그대는 하느님 거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들을, 그리고 빛나는 ‘동정’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뒤에서 지극히 깨끗한 자기의 빛으로 온 하늘을, 하느님 면전에서 사중들며 항상 즐겁게 서 있는 하느님의 손가락의 놀라운 일들과 아침 별들을 비출 것입니다.⁹⁹⁾

97) “Salve maria, Regina clementiae, oliva misericordiae, per quam nobis venit vitae medicina, clementiae Regina, virgo mater divini germinis, per quam nobis venit genus superni luminis, germen odoris Israel.”(*Ibid*,68)

98) Elkins, *Gertrude the Great*, 722.

99) “Tunc veniet tibi calix visionis, et inebrieris, calix inebrians et praeclarus gloriae divini vultus, et torrente divinae voluptatis potaberis, quum ipse fons luminis reficiet te aeternaliter suae plenitudinis in deliciis. Tunc videbis coelos inhabitationis gloriae dei plenos, et illud virgineum luminare, quod post deum totum illuminat coelum mundissimi luminis sui claritate, et mirabilia opera digitorum dei et astra matutina quae semper tam iucunde adstant ante faciem dei, ministrantes ei.”: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238-240.

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시편 8편과 비교해 볼 때, ‘동정’은 ‘달’을 의미한다. 달은 마리아에 대한 은유이다. 직접 마리아라 하지 않고, ‘동정’이라고 추상화한 것은 수련을 통해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정신적 실재로서의 동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3. 동정성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동정성(virginitas)을 영적성장의 높은 단계로, 천사들의 완전함에 버금가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정성에서 태어나신 아들이기도 하고, 동정성을 아내로 삼으시는 신랑이기도 하다.

천사의 완전함에 버금가는 축복받은 동정성은 자신의 주인을 잘 압니다. 그분의 신혼 방, 그분의 침대에 자신을 바칩니다. 그분은 영원한 동정성의 아들이시고, 또한 영원한 동정성의 신랑이십니다.¹⁰⁰⁾

12세기와 13세기에 들어와 여성들이 종교문학의 생산에 활동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작품들은 이전의 남성 신학자들의 본문들과는 다른 모습을 띄게 되었다.¹⁰¹⁾ 동정에 대한 이해가 하나의 사례가 된다. 헬프타의 제르투르다가 말하는 ‘동정’은 육체적인 것이기보다 정화된 혼이 주님과 이루는 더 높은 단계의 결합이다. 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순수해지고 동정하신 성모님을 닮아가는 헬프타의 제르투르다 자신의 체험과 여성 신학자로서의 사유의 결과이다.¹⁰²⁾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남성 신학자들과는 달리, 여성성의 부족함이 극복되어 남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수련으로 보지 않았다.¹⁰³⁾ 오히려 여성성이 성장하여 더 좋은 여성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수련으로, 영적인 진보로 이해하였다.

100) “Agnovit auctorem suum beata virginitas, et aemula integritatis angelicae, illius thalamo, illius cubiculo se devovit, qui sic perpetuae virginitatis est filius, quemadmodum perpetuae virginitatis est sponsus.”: *Ibid*, 110

101) Clark, *uneasy triangel*, 53.

102) 김희성의 연구에 의하면 동시대의 인물인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 1260-1327)도 동정성에 대한 추상적, 초월적 이해를 가졌었다: 김희성, 『마이스터 Eck하르트의 영성사상』, (예관, 분도출판사, 2019), 223.

103) “혼(anima)은[...] 여성적인 혼적(notam generis feminini)을 잃어버리고, 이성(이성)이 참여하는 영혼(animus particeps rationis)이 되며 육신을 다스리기에 적합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영혼을 가진 영(seipsum habens spiritus)이 됩니다. 아직 혼(anima)일 때, 쉽게 육적인 것 안에서 여자처럼 나약하게 됩니다. 진정한 영혼(animus vero), 즉, 영(spiritus)은 오직 남성적이고 영적인 것만 묵상합니다.” : de St. Thierry, *Lettres aux Frères du Mont-Dieu*, 306-308.

그 거룩한 포로의 협력과 담화로 저는 죄녀에서 성녀가 됩니다. 무용한 존재에서 참으로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원수에서 하느님의 참된 친구가 됩니다. 냉담한 여인에서 참으로 하느님을 목말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척박하고 비옥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갖 덕의 완성과 모든 종교적 거룩함을 싹틔우는 상태가 됩니다.¹⁰⁴⁾

‘거룩한 포로의 협력과 담화’는 죄녀를 성녀로, 무용한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 바꾸어준다.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여성적 감성으로 ‘수련을 통한 영적성장’을 온갖 덕의 완성과 거룩함을 싹틔울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말씀을 잉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나가는 말

본문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로,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의 『수련』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하는 ‘성덕’의 전통으로부터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주제를 묵상하는 ‘영신수련’의 전통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영성사적 변천의 중간 과정으로서의 흔적을 갖고 있다.

둘째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신화된다’는 체험적 설명으로 전통적인 신화에 대한 이해를 이어받으면서 디오니시우스적인 부정신학적 신비주의와 아가서 전통의 혼인의 신비주의를 결합하고 있다.

셋째로, 남성 수도자들이 성모님의 동정에 대해서 대상적으로 강조하던 것과 달리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수련자의 입장에서 영적성장의 높은 단계로서의 동정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라틴어의 문법적 성을 활용하여 ‘동정’을 생물학적인 것에서 영성적인 것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과부’와 ‘결혼 후에 수도원에 들어온 이들’도 모두 영성적으로 동정의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하였다.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풍부한 신학적 이해를 자신의 여성적

104) “O si mihi daretur optio, ut cum Iesu praecordialissimo et me tantillam captivares, vinculares, et proprie haereditares: ut de illius divini captivi consortio et colloquio, fierem de peccatrice, sancta; de inutili, homo vere spiritualis; de inimica, dei vera amica; de tepida, vere Deum sitiens; de sterili et infoecunda, germinans omnium virtutum perfectionem, et totius religionis sanctitatem.”: d’Helfta,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262.)

체험 안에 녹여내며 모든 이들을 위해 유연하게 새로운 영성의 길을 열어 주었다.

넷째로,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수련’을 통한 영적 성장에 대한 이해와 성도를 바탕으로 한 ‘말씀과 마음의 결합’에 대한 이해는 12세기 시토회 사부들과 교부들의 성도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렇지만 영적 성장의 단계와 과정 속에 ‘동정’이라는 이해를 둔 것은 그녀의 고유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여성적이고 영성적 시각으로 기존의 남성중심적이고 주류적인 이해를 보완하였다고 평가된다.

한편 샤를 앙드레 베르나르는 어떤 신학이 인간학적이며 체험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려 한다면, 그 신학은 그만큼 영성신학에 접근하게 된다고 하고 ‘신학은 영성에서 영감을 얻는다.’¹⁰⁵⁾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자신의 여성적 체험과 영성적 시각에서 기존의 ‘신화’를 말씀과의 결합을 통한 ‘마음의 신화’로 재해석하고, ‘동정’에 대한 영성적 이해를 통해 동료 수도자들이 영적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준 인물이다.

교회 안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의¹⁰⁶⁾가 광범위하게 거론되는 이 시기에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의 영성신학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여성적 시각으로 보완될 미래의 한국 가톨릭 신학의 모습에 대한 기대와 기대림의 표현이다.

영성이 없이 교의적 논쟁에 여성적 시각만을 더한다면 그것은 끝없는 논쟁으로 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영성을 바탕으로 여성적 체험과 이해를 설명해 나간다면 남성들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진정한 신학, 더 통합적인 하느님 이해에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이런 면에서 탁월한 모범이다.

“신학위원회에 여성신학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하십시오 [...]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신학을 더 깊고, 더 구수하게(piu profonde e più saporita) 만듭니다.”¹⁰⁷⁾

105) Charles André Bernard, *Teologia spirituale*, (Milano: Edizioni San Paolo, 2002), 60; 샤를 앙드레 베르나르, 『영성신학』, 박일·정제천 옮김, (서울:가톨릭 출판사, 2013), 87-88.

106) 박영호, 「교회안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55652 (접속일 2022.09, 17)

107) 교황 프란치스코, 「신학위원회와의 만남」 <https://www.youtube.com/watch?v=jBL1cxeXRqQ> (접속일, 2022.11.30)

참고문헌

- 길희성, 『마이스터 엑카르트의 영성사상』, 왜관: 분도출판사, 2019.
- 드 루박, 앙리(de Lubac, Henri), 「삼분법적 인간학(Anthropologie tripartie, 몸, 영혼, 영)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중세에서 현대까지」, 박진상 옮김, 『가톨릭 신학』 23,(2013), 179-256.
- 로올라, 이냐시오(de Loyola, Ignatius), 『영신수련』, 정한채 번역/주해, 서울: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2011.
- 베네딕도(Benedictus), 『수도규칙』, 이형우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91.
- 베르나르, 샤를 앙드레(Bernard, Charles André), 『영성신학』, 박일 · 정재천 옮김,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13.
- 신창석, 「베긴네의 출현과 가톨릭 여성신비주의」, 『가톨릭철학』 19,(2012), 5-34.
-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참된 종교』, 성염역주, 왜관: 분도출판사, 1989.
- 오먼, 조던(Aumann, Jordan),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 이흥근/이영희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98.
- 존스톤, 윌리엄(Johnston, William), 『신비신학』, 이봉우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7.
- 박영호, 「교회안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55652(접속일 2022,09, 17)
- 프란치스코 교황, 「신학위원회와의 만남」, <https://www.youtube.com/watch?v=jBL1cxeXRqQ> (접속일, 2022,11,30)
- Abril, Michael Anthony. "Gertrude of Helfta's Liturgical-Mystical Union.", *Cistercian Studies Quarterly* 43, (2008,1).
- Bernard, Charles André, *Teologia Spirituale*, (Milano: Edizioni San Paolo, 2002
- Burchill-Limb, K-Y. "The actuality of Augustine's distinction between" uti" and" frui"." *Augustiniana* 56, (2006, 1/2).
- Bynum, Caroline Walker, *Jesus as Mother: Studies in the spirituality of the High Middle Ag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 Chenu, M.-D. *La théologie au douzième siècle*, Paris: Librairie Philosophique J. Vrin, 1976.
- Clark, Anne L, "An uneasy triangel: Jesus, Mary and Gertrude of Helfta", *Maria* 1, (2000, 1).

- Clemens, Parousia, “Gertrude, Spouse of Christ: Espousal with Christ through liturgies of entrance into the monastic life in the spiritual exercises of Saint Gertrude of Helfta”, *Magistra* 27, (2021, 2).
- Deloffre, Marie-Hélène, “Les exercices sont-ils l’oeuvre de Sainte Gertrude d’Helfta? Approche stylistique”, *Cîteaux* 68, (2017, 1/4).
- de St. Thierry, Guillaume, “Lettres aux Frères du Mont-Dieu”, *Sources Chrétiennes* 223, tr. Jean déchanet, Paris: Cerf, 1985.
- d’Helfta, Gertrude, “Oeuvres Spirituelles I (Les Exercices)”, *Sources Chrétiennes* 127, Paris: Cerf, 1967.
- _____, “Oeuvres Spirituelles II (Le heraut)”, tr. Pierre Doyere, *Sources Chrétiennes* 139, Paris: Cerf, 1968.
- _____, “Oeuvres Spirituelles III (Le héraut)”, tr. Pierre Doyère, *Sources Chrétiennes* 143. Paris: Cerf, 1968.
- _____, “Oeuvres Spirituelles IV (Le héraut)”, tr. Jean-Marie Clément, les Moniales de Wisques et Bernard de Vregille, , *Sources Chrétiennes* 255. Paris: Cerf, 1978.
- Elkins, Sharon, “Gertrude the Great and the Virgin Mary”, *Church History* 66, (1997, 4).
- Graef, Hilda, *The Story of Mysticism*, London: Peter Davies, 1966.
- Jeremy, Mary, “Similitudes in the Writing of Saint Gertrude of Helfta”, *Mediaeval Studies* 19, (1957, 1).
- Johnson, Ella, *Liturgical exercise as a Theological anthropology in Gertrude the Great of Helfta’s Documenta spiritualium Exercitium*,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t. Michael's College, 2010.
- _____, “Eucharistic Theology and Anthropology in Gertrude of Helfta and William of Saint-Thierry: On the sense of Taste”, *Magistra* 27.1, 2021, 79-93
- Jones, Claire Taylor, “Hostia Jubilationis: Psalm Citation, Eucharistic Prayer, and Mystical Union in Gertrude of Helfta’s Exercitia spiritualia”, *Speculum*, 89, (2014, 4).
- Köbele, Susanne, “Erbauung-und darüber hinaus: Spannungen im volkssprachlich- lateinischen Spätmittelalter. Mit überlegungen zu Gertruds von Helfta Exercitia spiritualia ”,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und Literatur* 137, (2015, 3).

- McGinn, Bernard, *Eriugena: East and West*,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4
- _____, *The Flowering of Mysticism*, New York: Crossroad, 1998
- of Helfta, Gertrude The Great, *Spiritual Exercises*, trans. and Introduct., Gertrud Jaron Lewis/Jack Lewis, Kalamazoo: Cistercian Publications, 1989.
- Oliver, Michael, *St. Gertrude the Great*, Dublin: Anthonian Press, 1930.
- Pourrat, P, *La Spiritualité chrétienne II Le moyen Age*, Paris: Librairie Victor Lecoffre 1924.
- Quenardel, Olivier, "Saint Gertrude of Helfta: Doctor of the Prayer of the Church", *Cistercian Studies Quartely*, 49(2014, 2).
- Roisin, Simone, *L'hagiographie cistercienne dans le diocèse de Liège au XIIIe siècle*, Louvain: Lovain Bibliothèque de l'Univ, 1947.
- Ruh, Kurt., *Geschichte der abendlandishcen Mystik II: Frauenmystik und Franziskanische Mystik der Fruhzeit*, Munchen: Verlag C.H.Beck, 1993.
- Schmitt, Miriam, "Gertrud of Helfta: Her Monastic Millieu and Spirituality," in *Hidden Spirings: Cistercian Monastic Women: Medieval Religious Women 3*, John A. Nicholas and Lillian Thomas Shank, Kalamazoo: Cistercian, 1995.
- Vagaggini, Cypriano, "The Example of a Mystic: St. Gertrude and Liturgical Spirituality." in Vagaggini, *Theological Dimensions of the Liturgy: A General Treatise on the Theology of the Liturgy*, trans. Leonard J. Doyle and WA Jurgens, MN: Liturgical Press, 1976.
- Benedict XVI, Saint Gertrude, https://www.vatican.va/content/benedict-xvi/en/audiences/2010/documents/hf_ben-xvi_aud_20101006.html (접속일 2022,5,30).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의 영성: 『수련』(Exercitium)을 중심으로

정태영

이나시오가 『영신수련』이라고 책의 이름을 지을 때 ‘수련’이란 말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일까? 본 연구는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답을 찾는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도교의 ‘수련’ 전통이 12세기경에 다시 살아남을 알게 되고, 기존의 ‘성독’의 전통으로부터 ‘영신수련’이라는 새로운 전통으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에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의 『수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헬프타의 제르투르다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래적 순수함을 회복시켜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하는’의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마음 안에서 말씀과 결합하게 된다. 마음은 우리가 말씀을 되새기는 곳이다. 우리가 수련을 통하여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감각으로 넘어가고 무질서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흠없는 존재가 된다.

‘수련’을 통하여 우리는 ‘신화된 마음’을 갖게 된다. 헬프타의 제르투르다는 이를 영적인 ‘동정’이라고도 한다. 동정은 영적 성장의 결과이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변화의 은총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성독’과 ‘영신수련’은 상호 보완되어야 함을 알게 된다.

주제어: 수련, 말씀, 마음, 동정, 헬프타의 제르투르다.

Spirituality of Gertrude of Helfta focused on *Exercitium*

Joung, Tae-Young

When Ignatius named the book 『Exercitium Spiritualis』, where did the word ‘Exercitium’ come from? This study started with this question. In the process, one book written by Gerturde of Helpta had been found which is called 『Exercitium』. As studying this book, it was realized that Gertrude of Helfta's 『Exercitium』 shows an intermediate stage from the tradition of ‘Lectio divina’ to the new tradition of ‘Exercitium Spiritualis’. For her, ‘exercitium’ means edifying ‘inner monaterly’ and prepares to receive God’s operation.

The heart is where we reflect on the Word. When we pass from our senses to that of Christ through practice and free ourselves from disordered attachments, we become flawless.

According to Gertrude of Heftha, we could have a “divinised heart” through ‘seeing-loving-believing-and loving more deeply’. finally in this study, it was convinced that ‘Lectio divina’ and ‘Exercitium Spiritualis’ are not mutually exclusive, but complementary.

Key Words: exercitium, lectio divina, divinised heart, The Word, St. Gertrude.

논문 투고일	2022년 7월 25일
논문 수정일	2022년 11월 25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2년 11월 25일
